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제3권 32호(다해) 2010-7-4

[묵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양단철,
유리화,
성북동성당>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스르게 되고,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당신을 고발하고 배척하는 이들과
관계를 그르칠까봐
외면하고 침묵하기보다는
주님,
당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직접 알려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하시나,
저의 고민은
제 안에 채신 아버지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시간이오니,
끝까지 견디는 이가 받을
구원을 위한 고민이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에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윌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진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인숙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박인식 토마스, 이인숙 베로니카, 정해홍 요셉,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조지 가보라, 장숙환 수산나, 이금순 마리아,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홍방지거,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김중환 야고보
	(생)고규재 체칠리아, 마크 안, 최석원 클레멘스, 송준규 미카엘 가정, 박준서 야고보, 박진영 사도 요한, 토런스 서 3반 가정들, 이인숙 베로니카, 문 밍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 하권(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음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0	345
봉헌	373	268
성체	주 말씀 향하여	106
파견	339	343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생명에 대한 인간의 책임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람이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 (창세 2,18) 하시고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마태 19,4)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창조사업에 인간을 특별히 참여 시키고자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라.' (창세 1,28) 하시며 남녀를 축복하셨다."고 가르친다.

공의회는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특별히 참여"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매우 인간적이고, 충만한 종교적 의미를 가진 사건임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몸" (창세 2,24)을 이루는 부부와, 스스로 거기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모두 참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가정 교서」에서 본인이 말했듯이, 두 사람의 부부 결합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날 때, 그는 자신과 함께 바로 하느님 자신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을 세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인간의 계통은 바로 생식 생물학 자체에 새겨져 있다. 부부가 부모로서 새로운 인간의 잉태와 출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의 법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느님 친히 인간의 부성과 모성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상의' 다른 모든 생식의 경우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과는 다른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 홀로 인간이 창조 때에 부여받은 인간 고유의 저 '닮은 모습'의 근원이시다. 출산은 창조의 계속이다.

"인류의 어머니" (창세 3,20)인 첫 번째 여인이 기뻐 외쳤다는 성서의 기록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웅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하와는 이렇게 외친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창세 4,1) 그러므로 출산에서는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과, 그분과의 유사성이 전달되며, 그것은 불멸의 영혼이 창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담은 책의 앞부분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치어주셨다.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창세 5,1-3) 부부의 위대성은 당신의 모상을 새로운 피조물에게 전달하시는 하느님께 협력하는 그들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가족을 날로 자라게 하시며 풍요케 하시는 창조주와 구세주의 사랑과 협력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

무엇을 위한 삶인가?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우리는 첫째 독서에서 즈카르야라고 불리는 한 순교자를 만납니다. 그는 하느님을 저버린 요아스 임금을 비난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마는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이 구절을 좀 더 직역해 본다면 “야훼께서 보시고 물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훼께서 즈카르야의 죽음을 보시고,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를 죽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죽음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죽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라는 사건은 한국사와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국가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의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녔던 종교적 신념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본다면 그의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도 숭고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신념과 희망을 오늘의 로마서 독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임을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그 희망이 바로 사제 김대건의 희망이었음을 우리는 조선의 첫사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옥중에서 남긴 서신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바오로 사도와 안드레아 사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사제의 그 희망이 아마도 오늘의 교회의 희망이기도 오늘 우리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는 이름으로 기념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지키고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도 역시 남기십니다. 이 말씀은 박해와 구원을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있지만, 즈카르야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 그리고 안드레아 사제를 기억해 보면 그들은 이미 죽음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살고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도 역시 그 마지막 길을 가야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보시고 물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고... 아니 안드레아 사제를 기억하며 읽는 오늘의 말씀 안에서 벌써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죽어가고 있느냐고.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전남숙 리디아	채승희 에스터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래오	이민상 요한	제1독서자	민술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오늘은 교회 캘린더 상으로는 연중 제14주일이지만 7월5일(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대축일을 경축이동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분은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힘겹게 공부하며 온갖 고초 끝에 한국인으로서는 첫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만에 순교하셨습니다.(1846년) 김대건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불굴의 용기와 굳은 믿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교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10년~2011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새로 조직 됐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됐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 총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 부회장 : 이용식 베드로, 최기남 야고보, 한창주 요아킴, 고규재 체칠리아
- 총무 : 이남현 막시모
- 부총무 : 박인식 토마스, 정동호 하상 바오로, 엄혜은 도로테아, 권순길 체칠리아
- 재무부장 : 배난군 세레나 ● 복음화부장 : 김충섭 마틴
- 사회복지부장 : 오홍철 스테파노
- 소공동체부장 : 김씨니 클라라 ● 시설관리부장 : 김찬구 요한
- 전례부장 : 윤희동 안토니오 ● 조경부장 : 김양금 안나
- 종교교육부장 : 최재은 베드로
- 청소년부장 : 최진수 에우세비오

합계 : \$5,270

- 체육부장 : 현석주 아오스딩 ● 홍보부장 : 이진행 힐라리오
- 주일학교장 : 강혜원 아네스 ● 한국학교장 : 이헬레나
- 요셉회장 : 권태만 실베스텔 ● 안나회장 : 김금자 데레사
- 양업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 성모회장 : 최옥희 데레사
- 대건회장 : 김용 스테파노 ● 원서회장 : 김도형 에우제니오
- 자모회장 : 윤은경 미카엘라 ● 제대회장 : 미정
- 배론청년회장 : 이상용 엘리아 ● 대학부 : 김낙기 바오로
- * 임명장 수여식이 다음주일(11일) 낮미사중에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장 /반장 회의 7월11일 주일로 연기
매달 첫주일에 있는 구역장 반장 회의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 둘째주일로 연기합니다.

- 일시 : 7월11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교우 가정 방문’ 누락자들 신청받습니다.

지난 4월중순부터 진행된 신부님·수녀님의 백삼위 본당 소속 교우택 가정 방문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교우들과 구역, 반 소속이 되지않은 기타 지역 신자들은 사무실에 등록하시면 ‘가정방문 축복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업회원 모집 및 회장단 이취임 모임

- 일시 : 7월11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장
- 문의 : 오세원 아타나시오 신임회장 ☎(310)569-0482

◆ 윤정철 부산 가톨릭대학 총장 신부님 특강

- 일시 : 7월14일(수) 오후 7시30분 미사중에-
- 주제 :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 예비자 교리 시작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문의 : 복음화 분과 김충섭 마틴 위원장 ☎(213)820-7636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4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7월11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우거지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권진열	김병태	김선영	김영길	김용상
	김우용	김정애	김주량	김찬구	박종열	박주현
	서성용	신경훈	신순철	양영관	오일순	윤화정
	이경태	이병우	이상철	이태옥	이현주	임한나
	조화숙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최수복	한금순
	홍석인	홍선자	신영웨버			
	합계 : \$5,270					
미사헌금 : \$2,686						
성전헌금	강인모	권진열	김병태	김선영	김영길	김용상
	김우용	김주량	김찬구	박종열	서성용	신경훈
	신순철	양영관	윤화정	이경태	이병우	이상철
	이태옥	이현주	임한나	조화숙	최기남	최길주
	최미열	한금순	홍석인			
	합계 : \$2,740					
감사헌금 : 박씨니 이경태 송호창 박주현						

공지사항

◆ 신영세자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6월5일 첫영성체 예식과 함께 세례를 받은 5명의 학생들은 사무실에 가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 있습니다.

선데이스쿨과 한국학교가 지난 주일 종업식을 끝내고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중에도 주일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들이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참가비 : \$195 * 접수: 주일학교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청실 홍실' 제3차 만남의 장

- 일시 : 7월18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옥스포드 호텔, LA
- 신청 및 문의 : 남가주 한인 종신부제협의회
시몬 정 사무국장 ☎(714)530-3111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해외봉사회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 이나시오 영성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 제66차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 신청

- 일시 : 9월3일(금)~5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 50
- 주위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이번 주 단체 모임

독립기념일 연휴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판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3(화)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7/11(토)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7/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마틴&크리스티나 533-1435 7/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4(일) 오후5시, 할리웃보울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7(토)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김용 스테파노 378-4183 7/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7/14(수)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전하현 마리아 793-7733 7/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7/18(일) 야유회 델슨 파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1(일) 야외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2 반과 합동 반모임 장소 : 샌 피드로 파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P.V. 1,2,3,4 반 합동 반모임 7/18(일) 라이언 파 야유회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
	4	강숙경 로미니카 541-0767	"

특별! 교리

성체조배란?

☞ 새내기 신자입니다. 성당에 가면 성체조배실이있는데, 성체조배란 무엇이며 어떨 때 그곳을 찾는 것이 적당한 지 궁금합니다.

성체조배란,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을 가지고 바치는 신심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감실(龕室)에 모셔진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수난과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흠송하는 가운데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체조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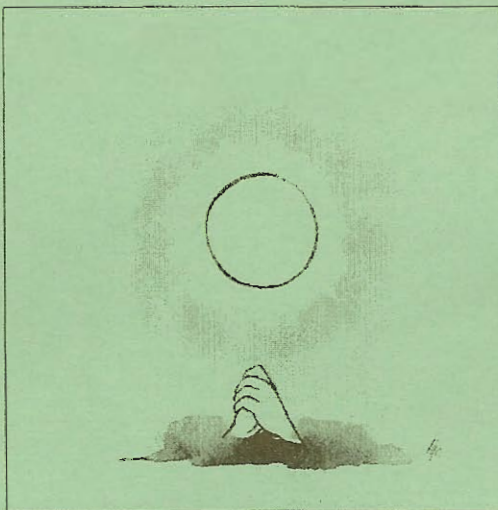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10,17) 그렇다면 감실은 무엇입니까? 감실이란, 성당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셔두는 곳입니다. 감실 안에는 성체를 담은 성합이 있으며 그 밑에는 하얀색 성체포가 깔려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단 하나의 감실만을 둡니다. 감실 앞에는 성체를 모셔두었음을 알리고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빨간색의 작은 램프(성체등)가 켜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감실 앞을 지날 때 성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깊은 절을 합니다. 사제가 미사 후에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이유는 첫째, 성당에 올 수 없는 '병자'를 방문하여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흠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알폰소는 성체조배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조배로 보낸 시간은 일생 중 가장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신심행사로 거두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 얼마 전 친구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어느 날 신부님에게 축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의식을 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나지 말라고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미신행위가 아닌지요?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다른 이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청하기도 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축복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물건도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물건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축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어 입주한 경우에, 또한 교통수단도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물건이나 장소를 축복할 경우에 축복의 대

상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경우 서로의 책임감을 상기시키고 이용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자신과 이웃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사제에게 자동차를 축복받았다고 하여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미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 특전미사를 자주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전미사에 참례하면 무효한 것입니까? 특전미사에 참례하면 주일미사에 참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현대사회는 아주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농경생활이 아닙니다. 사회활동에 따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기도 하고 자정이 넘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일미사가 불가능합니다. 눈치봐서 낮에 근처 성당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소수입니다.

교회는 성서적으로 사목적인 이유로 특전미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전미사 자체도 주일미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전미사를 드리고 양심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